

배포일시	2019. 7. 28.(일) 10:00 (총 1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관 측 과	담당자	관측과장 김성진	전화번호	051-718-0354

부산 올해 첫 열대야 발생
- 작년보다 16일 늦게 -

- 어젯 밤(7월 27일) 부산의 최저기온이 25.7℃를 기록하여 역대급 무더위였던 작년보다 올해는 16일 늦게 첫 열대야가 발생 하였다.
- 이번 열대야가 발생한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밤사이 흐린 가운데,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최저기온이 25℃ 이상 유지되어 열대야가 발생하였다.
- 특히, 폭염특보가 발표된 울산과 일부 경상남도(양산, 김해, 밀양, 함안, 창녕, 함양, 합천)에는 모레(30일)까지 낮 최고기온이 33℃ 이상 오르겠고,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1℃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. 또한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모레(30일)까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,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【 부산의 최근 5년 첫 열대야 발생 현황(단위 : °C) 】

구분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
최저기온	25.7	25.1	25.9	26.0	26.4
발생일	7.27	7.11	7.16	7.24	7.26

※ (열대야란?) 밤 최저기온(18:01~ 익일 09:00)이 25℃ 이상인 날, 기온이 밤에도 25℃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함